



# 복음서와 함께하는 사순절 묵상

| 사순절 갈보리 기도회 |

2022. 3. 2수 ~ 4. 16토



뉴질랜드 광림교회  
NEW ZEALAND KWANGLIM  
METHODIST CHURCH

## ■ 사순절의 의미

사순절을 뜻하는 영어 렌트Lent는 고대 앵글로 색슨어Lang에서 유래된 말로, 독일어의 Lenz와 함께 ‘봄’이란 뜻을 갖는 명칭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40일간의 기념일’이라는 뜻의 희랍어인 ‘테살코스테’를 따라 사순절로 번역합니다. 이는 부활 주일을 기점으로 역산하여 도중에 들어있는 주일을 뺀 40일간을 주의 고난과 부활을 기념하고 묵상하며 경건히 보내고자 하는 절기입니다.

한편 40이란 수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받으신 일, 모세가 40일간 시내산에서 금식한 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까지의 40일 등과 같이 성경에 여러 번 고난과 갱신의 상징적 기간으로 등장합니다.

이에 고난 주간을 포함하여 그리스도께서 죄인 된 우리의 구속을 위해 수난을 당하신 사건에 담긴 구속사적 의의를 살펴보며 자신의 신앙을 재각성하고자 40일간의 절제 기간을 갖는 것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 ■ 사순절의 유래

사순절은 초대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기념하던 성찬식과 주님의 수난에 동참하고자 행하던 금식으로부터 그 유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금식을 행했는데, 초대 교회 성도들도 신앙의 성장과 회개라는 차원에서 구약의



유월절 만찬을 새롭게 해석하여 성찬식에 앞서 금식을 행하였습니다. 또한, 사순절이 끝나는 부활절에는 새로 영접되는 성도의 성례식을 행하였습니다.

## ■ 사순절의 행사

사순절 행사로서의 금식은 수세기 동안 매우 엄격하게 지켜져 왔습니다. 사순절의 식사로는 저녁 전에 한 끼 식사만이 허용되었으며, 물고기와 고기 등의 육류는 물론 우유와 달걀로 만든 음식까지도 금지되었습니다. 그러나 8세기 이후로 이 규정은 완화되기 시작하여 14세기에는 금식기도 대신에 절식 기도가 행해졌습니다. 그리고 15세기에 와서는 정오에 식사하는 것이 일반적인 종교 습관이 되었고, 저녁 시간에도 간단한 식사인 콜레이션(collation)이 허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연극, 무용, 연애 소설 읽는 것과 같은 오락행위는 금지되었으며, 화려한 옷을 입거나 좋은 음식을 먹는 것 등의 호화 생활은 자제되었습니다. 대신에 자선과 예배 참석, 기도 등이 권장되어졌습니다.

이후 1517년, 종교개혁을 거치면서 형식적이며 지나치게 많은 교회의 의식 절차는 폐지되었고, 이 과정에서 사순절과 관계된 많은 의식들도 간소화 내지, 폐지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을 회개의 시기로 지켰던 중세 교회의 사상은 여전히 받아들여져서 기념되고 있습니다.

## ■ 금식 기도

금식은 사순절의 가장 중요 관습이었습니다. 시기와 장소에 따라 금식의 기간과 엄격성의 정도에 차이는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구속 사역을 기념하는 하나의 관습이었습니다. 금식은 하늘나라의 백성됨을 감사하며 그 백성 된 자로서의 삶을 돌이키게 하는 행위로서 초대 교회 때부터 행해졌습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행해지는 이 금식 기도는 엄격했던 초기의 형태에서 많은 변화를 겪어 절식節食기도의 형태로 변모되어졌습니다.

## ■ 구제와 선행

사순절에는 범죄한 인류를 위해 고난받으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의미에서 불우한 이웃을 구제했습니다. 특히 사순절에 행해지는 금식 기도를 통하여 불우한 이웃의 배고픔과 가난을 생각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의 실천에 있음을 기억할 때,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사랑을 따라 이를 실천함은 성도의 마땅한 행위 중 하나라 말할 수 있습니다.

## ■ 사순절은 이렇게

사순절은 자기 근신과 금식의 기간 즉, 영적 훈련의 기간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고난과 죽음으로 향해가는 순례의 여정으로, 자기 부인의 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순절을 통해 자기 부인과 자신이 죽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사순절에는 다음 사항을 실천해 봅시다.

- 매일 정해진 시간에 성경을 읽는다.
- 매일 기도와 묵상의 시간을 갖는다.
-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금식을 한다. (기호식품, 군것질, 오락 등을 삼가한다)
-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주변에 아픔을 당하는 이웃과 친구를 돕는다.

## ■ 나의 십자가 지기

이 항목은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서약이 됩니다. 내가 지킬 수 있는 항목에 V표해봅시다.

- ☐ 새벽기도에 잘 참여하겠습니다.
- ☐ 저녁예배에 성실히 참여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 ☐ 성경말씀을 매일 1장 이상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겠습니다.
- ☐ 주 1회 이상 금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 ☐ 가정예배를 드리겠습니다.
- ☐ 무절제한 소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남을 속이거나 해하지 않겠습니다.
- ☐ 일상 속에서 절제하겠습니다. (금주, 금연 등)
- ☐ 이웃에게 사랑과 구제, 도움의 손길을 주겠습니다.
- ☐ 이웃과 다투며 분쟁하지 않겠습니다.

# 2022 사순절 달력

※ 달력에 표시된 성경을 함께 읽으면 사순절 기간동안 복음서를 일독할 수 있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3/7** 5일째

남은 조각을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본문 : 마태14:13~21  
복음서읽기:마태13~15

**3/14** 11일째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본문 : 마가2:1~12  
복음서읽기:마가 1~3

**3/21** 17일째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본문 : 누가3:1~22  
복음서읽기:누가1~3

**3/28** 23일째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본문 : 누가21:5~36  
복음서읽기:누가20~22

**4/4** 29일째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본문 : 요한10:1~18  
복음서읽기:요한9~10

**4/11** 35일째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본문 : 누가22:7~23

**3/8** 6일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본문 : 마태16:13~20  
복음서읽기:마태16~18

**3/15** 12일째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본문 : 마가5:21~43  
복음서읽기:마가4~6

**3/22** 18일째

나를 따르라

본문 : 누가5:27~39  
복음서읽기:누가4~6

**3/29** 24일째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본문 : 누가24:13~35  
복음서읽기:누가23~24

**4/5** 30일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본문 : 요한11:1~44  
복음서읽기:요한11~12

**4/12** 36일째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본문 : 마가14:32~42

**3/2** 1일째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본문 : 마태1:18~25  
복음서읽기:마태1~3

**3/9** 7일째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본문 : 마태20:1~16  
복음서읽기:마태19~21

**3/16** 13일째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본문 : 마가9:2~29  
복음서읽기:마가7~9

**3/23** 19일째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본문 : 누가8:26~39  
복음서읽기:누가7~9

**3/30** 25일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본문 : 요한1:1~18  
복음서읽기:요한1~2

**4/6** 31일째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본문 : 요한14:1~31  
복음서읽기:요한13~14

**4/13** 37일째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본문 : 마태26:57~75

| 목요일                                                                                    | 금요일                                                                                 | 토요일                                                                                    | 주일                                                                    |
|----------------------------------------------------------------------------------------|-------------------------------------------------------------------------------------|----------------------------------------------------------------------------------------|-----------------------------------------------------------------------|
| <b>3/3</b> 2일째<br>복이 있나니<br><br>본문 : 마태5:1~12<br>복음서읽기: 마태4~6                          | <b>3/4</b> 3일째<br>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br><br>본문 : 마태8:5~13<br>복음서읽기: 마태7~9             | <b>3/5</b> 4일째<br>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br><br>본문 : 마태11:25~30<br>복음서읽기: 마태10~12   | <b>3/6</b> 첫 번째 주일<br>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br><br>본문 : 마태13:1~23         |
| <b>3/10</b> 8일째<br>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br><br>본문 : 마태22:1~14<br>복음서읽기: 마태22~24 | <b>3/11</b> 9일째<br>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br><br>본문 : 마태25:14~30<br>복음서읽기: 마태25~26        | <b>3/12</b> 10일째<br>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br><br>본문 : 마태28:16~20<br>복음서읽기: 마태27~28 | <b>3/13</b> 두 번째 주일<br>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br><br>본문 : 마가1:21~34 |
| <b>3/17</b> 14일째<br>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br><br>본문 : 마가12:1~12<br>복음서읽기: 마가10~12 | <b>3/18</b> 15일째<br>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br><br>본문 : 마가14:3~9<br>복음서읽기: 마가13~14 | <b>3/19</b> 16일째<br>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br><br>본문 : 마가16:14~18<br>복음서읽기: 마가15~16   | <b>3/20</b> 세 번째 주일<br>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br><br>본문 : 누가2:22~52   |
| <b>3/24</b> 20일째<br>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br><br>본문 : 누가11:1~13<br>복음서읽기: 누가10~12          | <b>3/25</b> 21일째<br>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br><br>본문 : 누가14:7~24<br>복음서읽기: 누가13~15        | <b>3/26</b> 22일째<br>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br><br>본문 : 누가18:18~30<br>복음서읽기: 누가16~19         | <b>3/27</b> 네 번째 주일<br>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br><br>본문 : 누가19:1~10     |
| <b>3/21</b> 26일째<br>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br><br>본문 : 요한3:1~21<br>복음서읽기: 요한3~4             | <b>4/1</b> 27일째<br>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br><br>본문 : 요한6:22~40<br>복음서읽기: 요한5~6    | <b>4/2</b> 28일째<br>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br><br>본문 : 요한8:12~20<br>복음서읽기: 요한7~8         | <b>4/3</b> 다섯 번째 주일<br>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br><br>본문 : 요한9:35~41        |
| <b>4/7</b> 32일째<br>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br><br>본문 : 요한15:1~27<br>복음서읽기: 요한15~16            | <b>4/8</b> 33일째<br>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br><br>본문 : 요한17:1~26<br>복음서읽기: 요한17~18          | <b>4/9</b> 34일째<br>내 양을 먹이라<br><br>본문 : 요한21:15~25<br>복음서읽기: 요한19~21                   | <b>4/10</b> 종려주일<br>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br><br>본문 : 마태21:1~11         |
| <b>4/14</b> 38일째<br>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br><br>본문 : 마가15:1~20                             | <b>4/15</b> 39일째<br>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br><br>본문 : 누가23:26~43                     | <b>4/16</b> 40일째<br>다 이루었다<br><br>본문 : 요한19:28~42                                      | <b>4/17</b> 부활주일<br>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br><br>본문 : 요한20:1~23              |



# 01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복음서 읽기 | 마태 1~3장

성경 마 1:18~25

구약 시대,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 구원의 지경을 온 열방으로 넓히고자 하셨지만,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온 열방의 구원이라는 궁극적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인간의 모습을 입으시고 직접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언과 약속의 성취자이신 메시아, 우리를 죄의 세력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구원자,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졌고, 우리는 그 안에서 참된 구원의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순절 첫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주님과 시작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

---

---

---

---

---

---

---

---

---

## 02 복이 있나니

복음서 읽기 | 마태 4~6장

성경 마 5:1~12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겸손한 자의 모습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자신의 연약함과 고독, 죄로 인해 우는 자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 우는 것입니다. 온유는 참고 인내하는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감정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자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마치 자신의 아픔처럼 받아들이는 자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부족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리는 사람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인데, 화평을 위해서는 자신이 영광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의를 위해 박해 받는 삶은 끝없는 자기부정과 십자가의 길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가치를 두고 사는 자가 참된 복을 얻게 됩니다.

---

---

---

---

---

---

---

---

## 03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복음서 읽기 | 마태 7~9장

성경 마 8:5~13

백부장은 당시 로마 군대에서 100명 가량의 보병을 책임지는 사람이었습니다. 대부분 평민 출신으로, 사병에서 승진한 자였으며, 실력과 리더십을 겸비한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시라고 한 이유(8절)는, 이방인인 자신이 예수님을 맞이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으로는 지위와 권세가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 앞에서 한없이 작은 자임을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과 고백에 감동하셨고, 그의 하인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의 겸손은 하인을 사랑하는데서 시작되었습니다. 백부장의 겸손과 예수님의 사랑이 치유와 기적을 불러온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겸손한 자에게 찾아오십니다.

---

---

---

---

---

---

---

---

---

---



# 04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복음서 읽기 | 마태 10~12장

성경 마 11:25~30

‘수고한다’는 말은 헬라어 ‘코피온테스’로서 능동적인 고생을 말합니다. 필요 없는 고생을 스스로 만들어서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마음의 욕심이 인생을 고생스럽게 만듭니다. 또한 ‘무거운 짐’이라는 말은 헬라어 ‘페포르티스메노이’로서 수동적인 고생을 말합니다. 타의에 의해 지워진 고생입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에 자신이 원하지 않는 고생을 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의든지 타의든지 고생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든 존재를 부르시며 쉬을 주기 원하십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참된 쉼과 안식의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데,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29절)고 하십니다. 멍에는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무언가를 상징하는 것으로 경제, 정치, 사회, 문화 등의 멍에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무거운 멍에들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이 함께 메주시는 기쁨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

---

---

---

---

---

---

---

# 주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성경 마 13:1~23

씨 뿌리는 비유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수용의 자세와 마음에 관한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만 전혀 깨닫지 못하거나 들어도 실천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처음에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지만 환난이나 박해를 받으면 넘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사로잡혀 열매를 맺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깨닫는 자는 많은 결실을 맺게 됩니다.

우리 삶에 말씀이 깊게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막는 장애요소가 있습니까? 늘 말씀 앞에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겸허한 자세와 마음에 말씀의 씨앗이 심어지고 자라나는 은혜가 있습니다.

---

---

---

---

---

---

---

---

---

---





### 산상수훈 The Sermon on the mount

귀스타브 도레 (Gustave Doré), © 1974 by Dover Publications, Inc.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 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마태복음 6:28~29**



# 05 남은 조각을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복음서 읽기 | 마태 13~15장

성경 마 14:13~21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을 전하시며 치유해주셨는데, 곧 날이 저물고 식사할 때가 되었지만, 그곳은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었습니다.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16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배고픔의 문제에 직면한 제자들은 그들이 처한 현실과 갖고 있는 것만 바라봤습니다.

그들이 갖고 온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는 희망이 아닌 절망적인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기도드렸습니다. 이처럼 하늘을 향한 시선과 믿음은 우리를 풍성하게 채워줍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많은 사람들의 영적 빈곤을 채워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들은 육의 양식을 먹으면서도 영적인 풍요로움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

---

---

---

---

---

---

---

---

---

# 06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복음서 읽기 | 마태 16~18장

성경 마 16:13~20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다른 것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우상입니다. 때로는 물질이, 자녀가, 성공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 사람을 의지하고 쾌락과 정욕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에는 수많은 가르침, 우상, 그리고 로마의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고백은 단호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자 구원자로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17절)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심을 깨달아 더욱 복된 인생을 만들어가기 바랍니다.

---

---

---

---

---

---

---

---

---

---

# 07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복음서 읽기 | 마태 19~21장

성경 마 20:1~16

무엇이든 재능을 가졌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사람들로 부터 인기를 얻고 사랑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품꾼의 비유에서 인력시장에 늦게까지 남아있던 사람들이 아마 이러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뭔가 부족해보여서 아침 일찍 선발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대로 해가 저물어 버린다면 그들은 빈 손으로 집에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여러 번 시장에 나가 품꾼을 불러오고 똑같은 일당을 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인의 마음에는 일당을 받지 못하면 빈 손으로 집에 돌아가야 할 사람들의 불쌍한 삶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포도원에 불러와서 일하게 하고 그들에게 일한 대가로서의 일당이 아니라, 하루를 살아가기에 필요한 비용을 준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비교하기보다 나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언제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 08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복음서 읽기 | 마태 22~24장

성경 마 22:1~14

임금의 잔치에 초청받았다는 것은 대단한 영광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초청에 응하지 않았을까요? 더이상 임금을 임금이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약속과 예비하심에 큰 매력을 느끼지 못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도 잘 살고 있는데, 굳이 천국을 소망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초청을 받았지만 그에 응하지 않고 자기 밭으로, 또는 자기의 사업을 위해 각자의 길을 간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초청과 영생의 삶에는 무관심했으며, 오히려 종들을 죽인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적대감을 나타냈던 것입니다. 이제 임금은 특정한 사람들이 아닌 길거리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그들의 신분과 행함에 상관없이 혼인잔치에 초청합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천국은 이스라엘 민족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모두를 향해 열려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자가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

---

---

---

---

---

---

---

---

---

## 09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복음서 읽기 | 마태 25~26장

성경 마 25:14~30

주인은 달란트를 남긴 종들을 칭찬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21, 23절)”. 그러나 달란트를 땅에 감추었던 종은 책망하며 내쫓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26절),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30절).

여기서 달란트의 주인은 하나님을, 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우리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주인이 돌아와 결산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뵈게 되는 심판의 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맞는 달란트를 주셨고, 마지막에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사용했는지 평가하시고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삶과 소유, 사명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잘 사용하여 칭찬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

---

---

---

---

---

---

---

---

---

# 10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복음서 읽기 | 마태 27~28장

성경 마 28:16~20

예수님께서 승천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할 일을 분부하십니다. 바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19~20절)는 지상명령입니다. 이 명령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 세례를 베푸는 것과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곧 제자를 삼는 일입니다.

세례는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연합, 곧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삶으로 가르치신 모든 것을 나의 삶으로 가르치고 지켜서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사역이었고, 이제 이 사역은 그를 따르는 주의 백성들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입니다.

---

---

---

---

---

---

---

---

---

---



# 주일 예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성경 막 1:21~34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지금까지의 가르침과 달랐기에 매우 놀랐습니다. 당시 율법학자나 서기관들은 율법의 외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만 가르쳤습니다. 해야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가르쳤을 뿐, 그 삶에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의 권위와 능력으로 귀신을 내쫓고, 참된 자유와 해방을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시몬의 장모와 병든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꾸짖어 내쫓으신 것처럼, 질병도 꾸짖어 치유하셨습니다. 이는 영적인 권세가 예수님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모든 치유와 회복, 자유와 해방의 역사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으로 인해 그 소문이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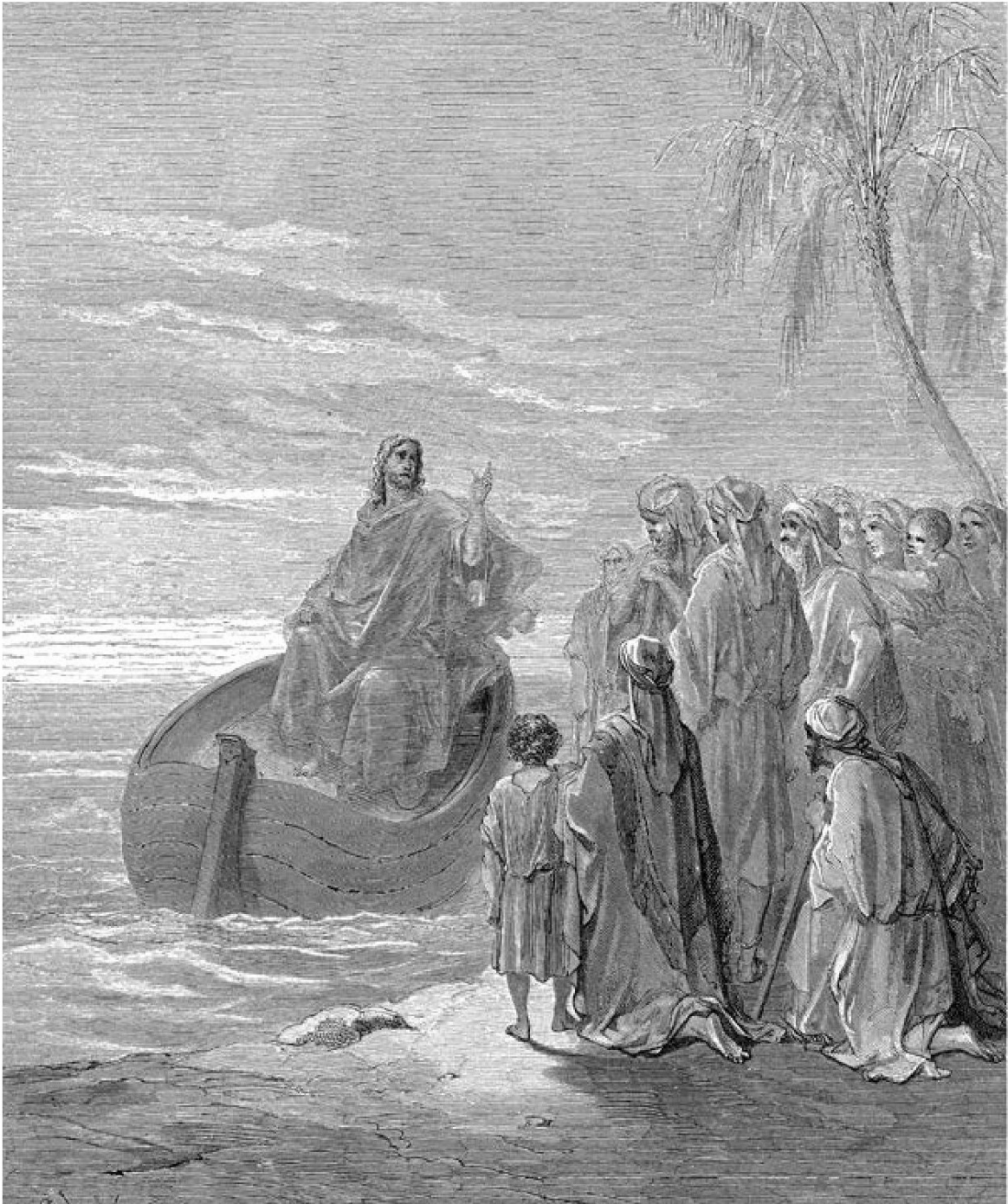
---

---

---

---

---



## 갈릴리 호수에서 설교하시는 예수님 Jesus preaching at the Sea of Galilee

귀스타브 도레 (Gustave Doré), © 1974 by Dover Publications, Inc.

우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누가복음 5:1, 3

# 11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복음서 읽기 | 마가 1~3장

성경 막 2:1~12

당시 유대 사회에는 중풍과 같은 중병의 원인을 죄라고 인식했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주심으로써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서기관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말과 행동에 관해 신성모독이라고 하며 정죄하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멈추지 않으시고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11절)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죄 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임을 의미함과 더불어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중풍병자를 향한 죄 사함의 선포는 온 인류를 향한 죄 사함의 선포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으로 죄 사함과 병 고침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

---

---

---

---

---

---

---

---

---



# 12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복음서 읽기 | 마가 4~6장

성경 막 5:21~43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치유된 기적의 순간,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조금만 빨리 갔어도 딸을 살릴 수 있었다는 원망과 분통의 마음이 야이로를 사로잡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36절)고 말씀하셨고 그의 딸을 일어나 걷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소녀의 아버지처럼 절망적일지라도 담대한 믿음으로 구원의 주님을 찾는다면 주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치 않으십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원망과 좌절을 참된 희망으로 바꿔주십니다. 주님을 향한 신뢰는 절망을 넘어서 우리를 놀라운 회복과 생명의 자리로 인도해줍니다.

---

---

---

---

---

---

---

---

---

---

# 13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복음서 읽기 | 마가 7~9장

성경 막 9:2~29

변화산에서 제자들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신 예수님을 보고 흥분한 나머지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 셋을 짓자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면 무언가 특별한 일을 해야 할 것만 같은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에게 들려왔던 하나님의 음성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7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기 전에 먼저 그 분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떠한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

---

---

---

---

---

---

---

---

---

# 14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복음서 읽기 | 마가 10~12장

성경 막 12:1~12

포도원 농부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농부들은 유대교 지도자들을, 종은 예언자들을, 상속받은 아들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이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몰라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소유와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 것임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더라도 내가 가진 생각, 힘, 소유를 내려놓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이 세상의 쾌락과 안락에 사로잡혀 순종할 마음이 사라지고 악한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

---

---

---

---

---

---

---

---

---



# 15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복음서 읽기 | 마가 13~14장

성경 막 14:3~9

한 여인이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당시 향유는 큰 가치가 있는 것이었지만 여인의 마음은 값비싼 향유보다도 더 가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향유를 부은 그녀의 마음을 받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든 드리고 싶었던 마음,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행위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것이라는 뜻하지 않은 큰 의미와 보람을 얻었습니다.

제자들은 이를 보고 비난했습니다.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선하고 복된 일이었지만 입방아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했지만 오히려 주변의 비난을 받게 된 경험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기대 이상의 칭찬으로 당신을 격려하시고 위로해주십니다. 또한, 그 진실한 마음을 반드시 기억해주십니다.

---

---

---

---

---

---

---

---

---

---

# 16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서 읽기 | 마가 15~16장

성경 막 16:14~18

영광스러운 부활의 소식을 가장 먼저 여인들에게 알려졌으며, 여인들을 통해 제자들과 사람들에게도 전해집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소식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와 몸소 나타내 보이셨을 때, 그 믿음 없음과 완악함을 꾸짖으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끝까지 연약하고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마지막 순간까지 연약했던 제자들, 무엇보다도 자신을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을 찾아와 예수님은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시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비로소 영광스러운 부활의 빛을 통해 주님의 죽으심의 참된 의미를 깨달았으며, 십자가 앞에서 도망하였던 삶이 십자가를 전하는 증인의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

---

---

---

---

---

---

---

---

---

# 주일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성경 눅 2:22~52

누가는 아기 예수님이 자라면서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다고 말합니다(40절). 강하여진다는 것은 신체적인 성장을,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지적인 성장을,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다는 것은 영적인 성장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육과 혼과 영이 균형 있게 잘 자라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성장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49절)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깊은 교제를 누리고 계셨음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을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받는 자로 자라게 하셨습니다.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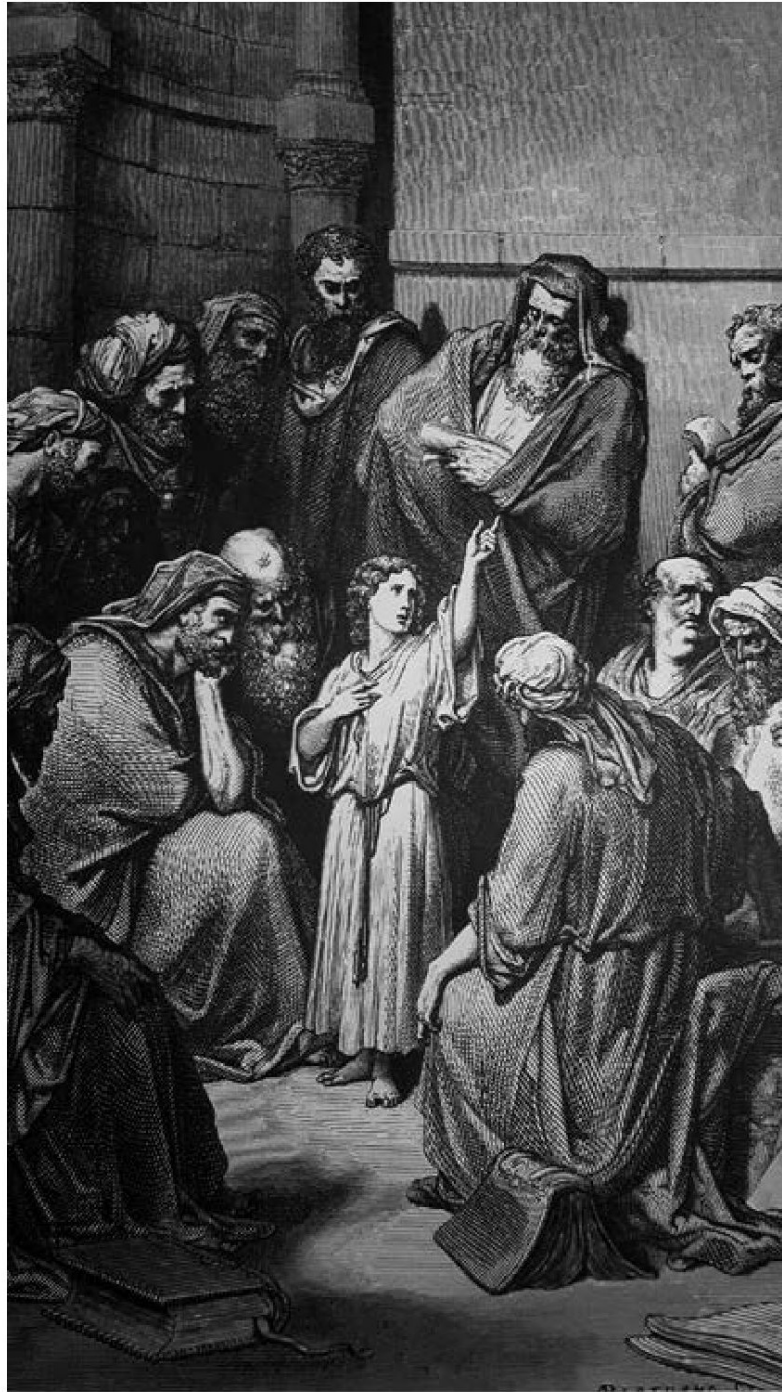
---

---

---

---





### 예수님과 선생들 Jesus with the doctors

귀스타브 도레 (Gustave Doré), © 1974 by Dover Publications, Inc.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  
까 하시니 누가복음 2:49

# 17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복음서 읽기 | 누가 1~3장

성경 묵 3:1~22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놀라운 사역을 보며 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아닌가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겸손하게 자신이 부족한 존재임을 고백했으며,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신의 사명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고, 광야 시험 이후에 본격적인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에 겸손하게 순종하며,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거룩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로 살아가야 합니다.

---

---

---

---

---

---

---

---

---

---

# 18 나를 따르라

복음서 읽기 | 누가 4~6장

성경 눅 5:27~39

당시 세리는 로마의 앞잡이로, 동족인 유대인의 혈세를 거두는 일을 하였기에 백성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으로 여겨졌던 세리 레위를 제자로 부르셨고, 레위는 바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영적으로 병든 자, 곧 죄인을 회개시키고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이 오신 것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은혜의 새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던 유대인은 옛 것에 빠져 새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절해버린 것입니다. ‘낡은 옷’, ‘낡은 가죽부대’, ‘묵은 포도주’로는 예수님의 ‘새 옷’, ‘새 부대’, ‘새 포도주’의 복음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에 가졌던 잘못된 것을 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고 영접해야 합니다.

---

---

---

---

---

---

---

---

---

---



# 19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복음서 읽기 | 누가 7~9장

성경 눅 8:26~39

예수님이 거라사인의 땅에 도착하셨을 때,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납니다. 군대라고 불리는 귀신들로서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는 강하고 악한 세력이 그 안에 있었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자, 그 사람은 정신이 온전해졌고 다시 옷을 입고 예수님 곁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자신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온 세상에 전하는 거룩한 도구로 쓰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상한 심령과 삶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날마다 복음으로 치유 받고 변화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고 선포되도록,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

---

---

---

---

---

---

---

---

---



---

---

---

---

---

---

---

---

---

---

# 20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복음서 읽기 | 누가 10~12장

성경 눅 11:1~13

주기도의 핵심은 기도의 중심과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나라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며, 우리를 위한 삶의 양식과 용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6:33)

이어서 예수님은 기도 응답에 관한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며, 자녀인 우리에게 좋은 것, 곧 성령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중요한 것은 기도의 실천입니다.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간청하는, 곧 구하며 찾고 두드리는 기도의 실제적인 행위가 뒷받침될 때 기도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

---

---

---

---

---

---

---

---

---

# 21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복음서 읽기 | 누가 13~15장

성경 묵 14:7~24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초청받은 사람들이 저마다 상석을 탐하는 것을 보시고 잔치에 초대받았을 때 끝자리에 앉으라고 하십니다. 이 비유는 끝자리에 앉았다가 주인에 의해 앞자리로 올라가는 영광을 누리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높임을 받게 됨을 의미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높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자신을 낮추며 섬기는 사람이 될 때 높임을 받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며 더욱 힘써 사랑의 실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의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복이 더해질 것입니다.

---

---

---

---

---

---

---

---

---

---



# 22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복음서 읽기 | 누가 16~19장

성경 묵 18:18~30

예수님은 영생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켰다고 자부하는 부자 관리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에게 그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주라는 것입니다. 이 말에 부자 관리가 근심하자 예수님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재물이 될 경우 하나님과 이웃에게 나아가는 길이 막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재물을 사랑하고 탐하는 마음의 위험성, 곧 재물이 하나님과 이웃보다 앞서게 된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엄중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

---

---

---

---

---

---

---

---

---

# 주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성경 눅 19:1~10

세리장 삭개오에게는 사람들의 비난과 멸시로 인해 열등감과 대인기피증, 소외감과 고립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는 키가 작고 사람들이 많아 예수님을 볼 수 없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도리어 적극적으로 돌무화과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고 그의 열등감과 소외감, 고립감 등 모든 삶의 문제와 구원의 문제까지 해결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만나고자 열정을 품고 전진하는 사람을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며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역경과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을 품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

---

---

---

---

---

---

---

---

---



## 병든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 Jesus healing the Sick

귀스타브 도레 (Gustave Doré), © 1974 by Dover Publications, Inc.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히매 고쳐 주시니 마태복음 15:30



# 23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복음서 읽기 | 누가 20~22장

성경 눅 21:5~36

나무들이 싹을 내는 것을 보고 여름이 가까이 온 줄로 알 듯이, 주님은 종말의 징조들을 보면 마지막 날이 가까이 온 줄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스스로 조심하여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하십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지 않고 언제 임할지 모르는 그 때를 잘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따라 철저히 종말을 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마지막까지 땅에서 받은 사명과 하늘을 향한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마지막 날을 온전하게 준비하는 삶, 그리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로 칭찬받는 거룩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

---

---

---

---

---

---

---

---

---

# 24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복음서 읽기 | 누가 23~24장

성경 눅 24:13~35

엠마오로 향하던 제자들은 자신들의 곤혹스러운 상황과 슬픔 때문에 함께 동행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영적 침체가 얼마나 크고 깊었는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하심을 믿고 고백하지만, 실제 우리 삶의 모습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 세상의 염려와 유혹에 눈이 가려져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깊은 절망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실의에 빠져 엠마오로 향하는 무력한 발걸음 가운데 찾아오셨던 것처럼, 많은 어려움으로 지친 우리에게도 찾아와 함께 하시며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다시금 신앙의 힘찬 발걸음을 내딛게 하십니다.

---

---

---

---

---

---

---

---

---

---

# 25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복음서 읽기 | 요한 1~2장

성경 요 1:1~18

요한복음은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말씀과 비슷하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예수님, 생명의 빛을 비추시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은혜에 대해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을 믿고 마음의 중심에 모시는 이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

---

---

---

---

---

---

---

---

---



# 2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복음서 읽기 | 요한 3~4장

성경 요 3:1~21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까닭에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지만 모세가 높이 든 뿔뿔을 보기만 하면 회복되어 살아났습니다(민 21:4~9). 이처럼 장차 높이 들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는 자는 죄에서 해방되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이전과 다른 새로운 삶이 눈앞에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장대에 들린 뿔뿔처럼 이 세상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매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 27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복음서 읽기 | 요한 5~6장

성경 요 6:22~40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다음 날에도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는 주님의 가르침과 삶을 동경해서라기보다는 지극히 세상적인 욕망과 욕심에 근거한 마음이었습니니다. 그들의 목적을 간파하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썩을 양식을 위해 살지 말고, ‘영생에 이르는 양식’을 얻기 위해 살라고 가르치십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무리는 광야의 만나를 언급하며 또 다른 표적을 구합니다. 눈에 확실한 증거를 보여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양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생명의 떡”이며, 이를 먹는 자는 절대 배고프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내 영혼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해결해주실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

---

---

---

---

---

---

---

---

---

# 28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복음서 읽기 | 요한 7~8장

성경 요 8:12~20

초막절에는 낮의 시간이 짧아지고 밤의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성전 구석구석을 등불로 밝히는 ‘빛의 의식’이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서는 빛의 의식을 염두에 두시고, 자신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비추는 참된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자만이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않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따르다’의 문자적인 의미는 ‘같은 길에 서다’입니다. 당시에 이 동사는 3가지의 경우에 사용되었습니다. 군인이 자신의 지휘관을 따르는 경우, 노예가 주인의 뒤를 따르는 경우, 그리고 제자가 스승을 따를 때입니다. 세상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길을 걸으며 영원한 기쁨과 소망이 가득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

---

---

---

---

---

---

---

---

---



# 주일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성경 요 9:35~41

예수님은 눈을 뜨게 된 맹인을 다시 만나 “네가 인자를 믿느냐”(35절)라고 물으십니다. 그러자 맹인이었던 자는 믿고자 함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절하며 심판에 대한 가르침을 듣습니다. 맹인이었던 사람은 육적인 눈만 다시 보게 된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도 보게 되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고 믿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오래된 규례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보이는 행위일뿐 진정한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맹인이었던 자는 보이지 않는 중에 믿었고, 그 믿음으로 고침을 받아 예수님을 인자로 고백하였습니다. 바리새인과 같이 영적 맹인의 모습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

---

---

---

---

---

---

---

---

---



## 무리에게 설교하는 예수님 Jesus preaching to the Multitude

귀스타브 도레 (Gustave Doré), © 1974 by Dover Publications, Inc.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누가복음 12:23, 31



# 29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복음서 읽기 | 요한 9~10장

성경 요 10:1~18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며 선한 목자다”(7, 11절)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말씀은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천국 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는 단순히 착하고 성품이 좋은 목자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양들을 위해 목숨까지도 버리는 목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목숨을 버리거니와’(11절)의 원문은 능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서는 자발적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목숨을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따라 선한 길을 걷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

---

---

---

---

---

---

---

---

---



# 30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복음서 읽기 | 요한 11~12장

성경 요 11:1~44

마르다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21절)라고 말하며 늦게 찾아온 예수님에 대한 섭섭함을 토로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25절)라는 말씀을 하시며 자신이 생명의 주관자임을 분명히 밝히십니다. 그리고 마리아도 불러 위로하시고 함께 아파하시며 눈물을 흘리십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자신과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랐습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그 어떤 문제도 해결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완전한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찾아와 위로하시는 부활의 주님 안에서 참된 생명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

---

---

---

---

---

---

---

---

---

# 31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복음서 읽기 | 요한 13~14장

성경 요 14:1~31

예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27절)라고 강조하십니다. 세상의 물질적인 풍요와 좋은 환경이 우리를 더 편안하게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제한적이며 임시적입니다. 또한 소유한 것을 잃게 될까 근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상황과 환경에 지배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에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도 승리하게 되며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주는 평안을 좇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

---

---

---

---

---

---

---

---

---

# 32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복음서 읽기 | 요한 15~16장

성경 요 15:1~27

예수님은 자신을 참포도나무로, 하나님을 농부로, 우리들을 가지로 비유하십니다. 가지가 열매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무에 붙어있어야 합니다. 가지 스스로는 절대로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뿌리로부터 영양을 공급받을 수 있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 속해있는 것, 예수님과의 연합이 가장 중요합니다.

‘거한다’는 표현은 일시적인 것이 아닌 지속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며,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

---

---

---

---

---

---

---

---

---



# 33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복음서 읽기 | 요한 17~18장

성경 요 17:1~26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이 땅을 떠날 것이고, 제자들이 남아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 받을 때 믿음을 굳게 해주실 것과 제자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거룩하게 성별 되어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전도를 통해 믿게 될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도들 간의 일치와 연합을 바라셨고 앞으로 믿게 될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구원 사역의 완성을 위해 하나님의 우편에서 중보자가 되어주십니다.

---

---

---

---

---

---

---

---

---

---

# 34 내 양을 먹이라

복음서 읽기 | 요한 19~21장

성경 요 21:15~25

제자들이 조반을 먹은 후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세 번 물으십니다. 베드로가 그렇다고 말하자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말씀하십니다. 목자의 일은 양을 잘 먹이고 잘 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자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양 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 우리들의 곁을 떠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목자의 일을 대신 맡아 양들을 돌봐줄 제자들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우리의 직무는 무엇일까요? 우선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무엇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따라 주님이 맡겨주신 양들을 잘 먹이고 돌보아야 합니다. 우리 곁에 아직도 주님을 몰라 방황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 다가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

---

---

---

---

---

---

---

---

---

# 주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성경 마 21:1~11

예수님은 사람들의 환호와 찬송 가운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나귀를 탔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예수님을 겐손의 왕이라고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섬기시고 자기 백성을 위해 생명을 내어주시는 왕이십니다.

세상의 왕은 강한 힘과 권세로 다스리는 자, 군림하여 압제하고 지배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모순적이게도 군중은 이를 기대하며 열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통치가 세상의 방식에 반하는 것임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자신을 낮추고 섬길 때 영광을 얻게 됩니다(빌2장). 부름 받은 우리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겐손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

---

---

---

---

---

---

---

---

---





### 예루살렘 입성 Entry of Jesus into Jerusalem

귀스타브 도레 (Gustave Doré), © 1974 by Dover Publications, Inc.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마태복음 21:9

# 35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성경 눅 22:7~23

자신을 죽이려는 음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서는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 일은 식탁을 넘어 현실적인 고난, 곧 십자가의 처절한 고통으로 이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찬은 주님과와의 연합을 상징하는 예식입니다. 그 연합 안에는 영원과 부활에 대한 동참 뿐만 아니라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고난, 세상 짐작들을 내려놓음, 고통에의 동참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서는 그 모든 것을 안고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내셨던 당신을 ‘기억하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시고 피 흘리신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

---

---

---

---

---

---

---

---

# 36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성경 막 14:32~42

예수님은 땅에 엎드리어 땀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눅 22:44). 예수님의 기도 핵심은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곤 합니다. 그렇지만 대개 그러한 기도의 내용이 나의 욕심이나 개인적인 소원일 경우가 많습니다.

나의 소원이 아닌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 예수님처럼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나는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제목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제목으로 바꾸어보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

---

---

---

---

---

---

---

---

---



# 37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성경 마 26:57~75

베드로는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되 저주와 맹세까지 했습니다. 이 사건은 베드로에게 너무나 수치스럽고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자신의 실패를 하나도 가감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치부와 같은 이야기를 숨기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에 관한 복음의 내용 속에 고이 남겨둡니다.

이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베드로의 실패의 이야기가 곧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실패자요 배반자인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그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 앞에 겸손히 나아가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한 날 되기를 바랍니다.

---

---

---

---

---

---

---

---

---

---

# 38 십자가에 못 박히게 남겨주니라

성경 막 15:1~20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님이 사형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뒤,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깁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로서 법에 대한 실질적인 판결 및 집행권은 로마 총독에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는 종교지도자들의 계획은 빌라도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재판과정에서 예수님의 무죄함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군중들의 반발이 심하자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선언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종교와 정치 세력의 결탁에 의한 것으로, 인간의 악함이 절정에 다다른 사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에게 악을 행한 그 십자가를 인간을 용서하기 위한 계시와 화해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

---

---

---

---

---

---

---

---

---

# 39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성경 눅 23:26~43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옆에는 두 명의 행악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한 행악자는 예수님께 진짜 그리스도라면 자신들을 구원해 보라고 조롱하였지만, 다른 행악자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옳다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말한 이 행악자는 결국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거하게 되리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과 모습들은 모두 다르지만 인간은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죄인이며, 결국 영원한 심판 앞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차이가 있다면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얼굴을 들 때 우리에게 소망이 보입니다. 또한 주님께로 나아가는 발걸음 끝에 구원의 기쁨을 발견하게 됩니다.

---

---

---

---

---

---

---

---

---

---



# 40 다 이루었다

성경 요 19:28~42

빌라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힌 패를 붙였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이 패의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여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자고 하였지만 빌라도는 “내가 쓸 것을 썼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심을 넘어 온 인류의 메시아가 되심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 대한 모든 예언을 이루시고, 십자가 위에서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는 “다 이루었다”(30절)고 말씀하십니다.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과 사명을 다한 것에 대해 생각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

---

---

---

---

---

---

---

---

---

# 주일 부활주일

##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경 요 20:1~23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예수님께 걸었던 제자들의 모든 기대가 절망으로 바뀐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자신도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가운데 떨며 도망칠 수밖에 없었고, 문을 걸어 잠가야만 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19절)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부활은 죄와 죽음의 권세로부터의 승리이며, 예수님께 참된 구원과 생명이 있음을 확증하는 사건입니다. 이제 그 분 안에 믿음으로 거할 때, 부활의 생명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해할 수도 없으며 예수님으로부터 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주는 평강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붙드는 자에게 세상의 모든 염려와 두려움, 절망과 좌절은 극복됩니다.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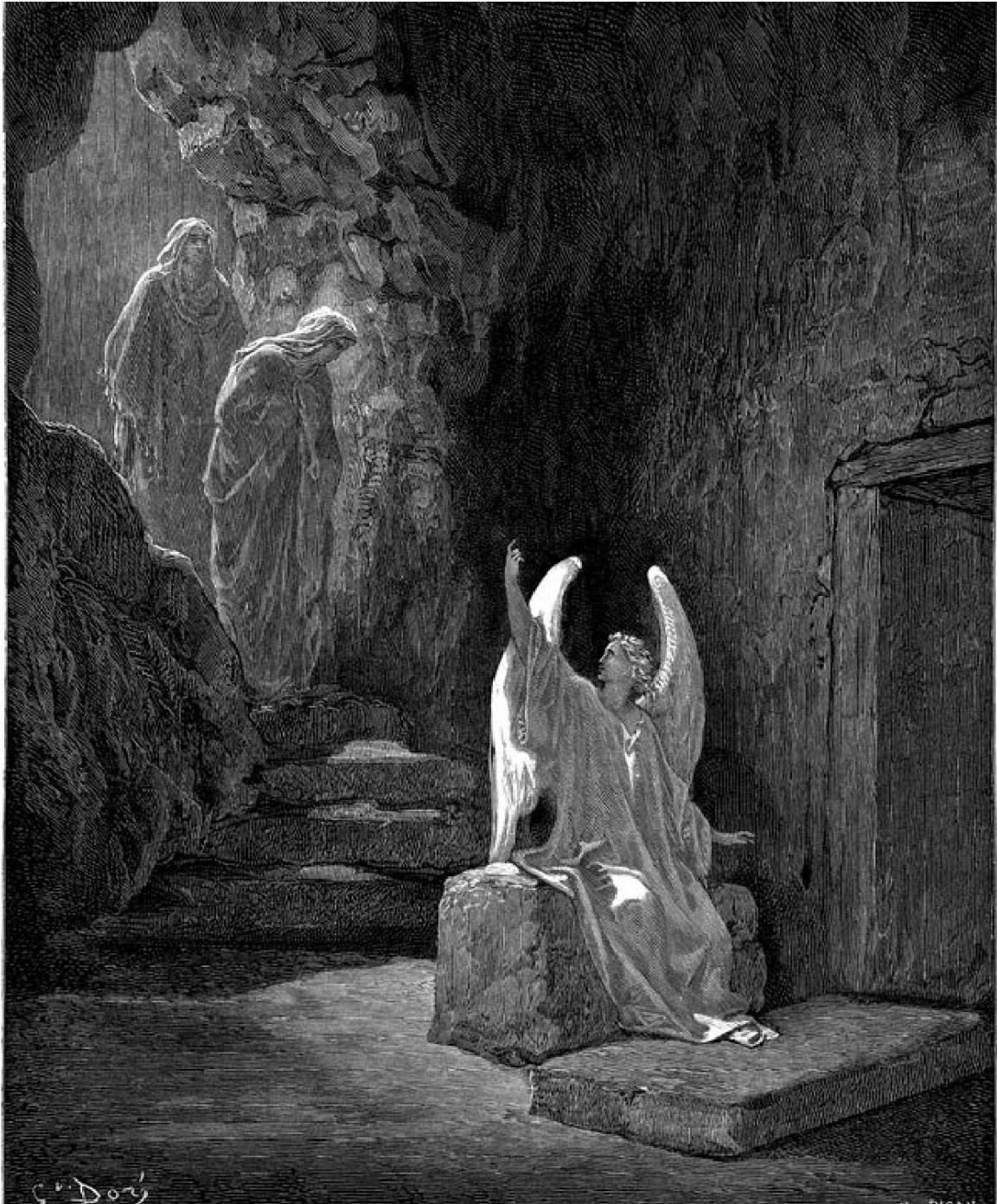
---

---

---

---

---



## 부활 The Resurrection

귀스타브 도레 (Gustave Doré), © 1974 by Dover Publications, Inc.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 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마태복음 28:5~6**



## ■ 사순절을 돌아보며

- 1 내 안의 이기심, 교만, 탐심을 버리고자 기도하였습니까?
- 2 주님이 기꺼이 수치와 멸시를 인내로 받으신 것처럼 매일 인내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 3 나의 생활을 절제하며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예수님 안에서 기꺼이 포기하였습니까?
- 4 주변의 절실한 도움과 기도가 필요 사람은 누구입니까?
- 5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용서하였습니까?
- 6 지금 부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

---

---

---

---

---

---

---

---

---

[illegible]



## 복음서와 함께하는 사순절 묵상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 마가복음 14:36 -